



제148회 발명교실

7월13일 성공사례 등 발표

본회가 주최한 제 148회 발명교실이 지난 7월 13일 발명장려관 연구실에서 개최되었다. 매일 둘째 토요일 오후 1시 30분에 개최 되는 발명교실은 이번에도 1백여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이날 발명교실에서는 (주)캐쉬피아 진익석 사장의 성공사례 발표와 김병진 변리사의 산업재산권 제도 해설 그리고 새생각회 강신득 회장의 발명의 발상기법에 대한 강의가 있었다. 발명가의 성공사례를 간추려 소개한다. <김은숙 記>

원적외선 방사 건강 보온 매트

(주)캐쉬피아 대표 진익석

발명의 동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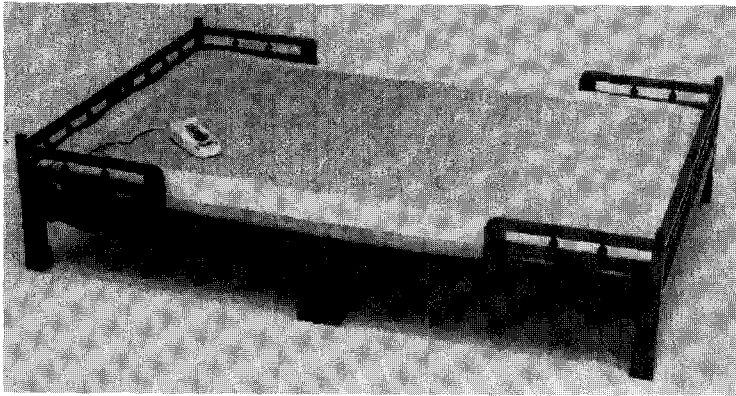
20여년간 수출용 섬유업에 종사하던 저에게 1990년초 한국 원적외선 응용연구소로부터 원적외선을 방사하는 재질을 섬유에 용착하여 영구적으로 그 효과를 낼 수 있는 섬유를 개발할 수 있겠는가?라는 기술적 용역을 의뢰받아 연구를 완성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원적외선 효과가 상온역에서 보다는 온열역 쪽에서 더욱 뛰어난 생체활성 효과가 있음을 알게 되었고 수입 대체 및 수출용 상품으로 개발해야겠다는 동기에서 시작하였다.

발명의 요지

종래의 보온매트는 열원을 겔상의 나트륨을 충전하거나 니크롬선을 배열한 상태에서 전류를 통전시켜 발열되는 것으로 실내 장식품 모서리나 압핀, 못 등에

의해서 봉입상태가 훼손되어 누출되기 쉬운 폐단이 있었고 후자는 굴신 강도가 낮아서 접었다 펼치는 상태를 반복할 경우, 니크롬선 자체가 끊어져 못쓰게 되는 폐단이 있었으나, 이 발명은 이들의 폐단을 보완하고,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생체에 유익한 바이오 에너지를 집중적





으로 방사할 수 있는 원적외선 방사세라믹을 섬유에 피라밋과 같은 형상에너지를 함께 낼 수 있는 문양으로 응축하여 반영구적으로 원적외선 에너지가 방사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침구에 응용하여 바쁜 현대인들이 쉽게 사용하게 함으로 평상시에 스스로 건강을 도울 수 있도록 하였다.

특징 및 기술성

이러한 기술적 보완위에 과거 작업공정이 복잡하여 비경제적이고 실용적이지 못한 단점을 보완하여 종래의 문제점을 해결한 이 발명의 목적은 원적외선 방사 세라믹이 열원을 받으므로써 방사량이 상온시에서보다 온열사용의 경우 몇배의 우수한 증진 효과가 있었다. 그리고 전기적 작용으로 음이온을 생성시키는 매카니즘과 원적외선을 방사하는 시트를 내장하여서 된 것

을 특징으로 하는 건강매트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모든 침구에 이 방법을 응용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의 단순히 깔고 덮은 침구의 개념에서 수면중에 우리의 몸을 활성화 시키고 건강을 돕는 건강보조 기능으로써 침구의 문화를 한차원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연구과정

현대의 주거문화가 과거 전통 한옥의 온돌식에서,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의 추세로 변화해가고 이 과정에서 heating system이 전도나, 복사방식에서 대류방식으로 전환되어 가는 생활 패턴으로 바뀌게 되었다.

음식문화 역시 서구화되어 자연과 친숙한 환경속에서 생활하던 우리가 자연과 동떨어진 환경과 여건속에서 생활하게 됨으로 인해 생기게 되는 각종 현대

병으로부터, 태양광선의 일종으로 수분을 주성분으로 하는 동·식물에 생육촉진의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원적외선을 이용하여 최소한 이나마 우리 몸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에서 시작하였다.

결론

동양의학에서 말하는 침이나 뜸은 인체의 경혈이나 경락부위에 놓아야만 되는 점의 치료법임에 반해, 원적외선 온열요법과 음이온 전위요법은 면의 치료이기 때문에, 치료면적이 넓은 것이 장점이다.

따라서, 대기오염이나 밀폐된 공간에서 생활하는 현대인들에게 생기기 쉬운 체내의 이온 불균형을 바로 잡아 주도록 함으로써, 체내의 면역기능을 강화시키고, 신진대사 및 혈액의 정화작용, 세포의 부활작용, 자율신경의 조종작용 등으로 우리의 건강을 스스로 돕게 하기 때문에 병원이나 약국[제1의학], 별도의 물리치료[제2의학]에 의존하지 않고, 단지 수면을 취하는 동안에 건강을 회복하고, 활기찬 내일을 맞게 하는 자연치료법으로 가칭 제3의학의 새로운 장을 열어갈 수 있는 제품이라고 할 수 있다. **발특9607**